

새 책

▶ '이 시대의 사랑' 외 3권(최승자 외 지음)=문학고지성사의 '시집 디자인 페스티벌' 기획으로 여성시인 최승자, 허수경, 한강, 이제니의 시집이 여성 북디자이너의 손길로 재탄생했다. 북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적 해석으로 새로운 시 텍스트 해석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학고지성, 각 1만2000원.



▶ 용은 없다(이시백 지음)=우화와 설화를 통해 민중의 근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가상과 실제의 문헌을 동원해 다른 차원의 해학을 구사하고, 민중의 삶을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국가권력을 우스개 대상으로 풍자한다. 유용주 시인은 "해학을 풀어놓으면서 현실 비판이 예리하다. 아프면서 웃긴다"라고 평했다. 삶창, 1만4000원.



▶ 마음의 부력(이승우 외 지음)=한 해 동안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결산하는 '이상문학상'의 44번째 작품집이다. 올해 대상 수상작인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 외에 5편의 우수작이 수록됐다. '마음의 부력'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짝막한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졌던 안타까움과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그 치유의 방식까지 암시해주는 접근법이 인상적이다. 문학사상, 1만5500원.



▶ 평양 누아르(정다운 지음)=정다운의 장편소설 '평양 누아르'는 살인마가 된 빨치산 후손 사내의 정체를 통해 1950년대 초 남한 빨치산 지도자의 최후를 둘러싼 북한 권력층의 음모와 배신, 그리고 빨치산 역사를 다시 조망해 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10여년간 단편들을 통해 미약하나마 한민족이 당면한 오늘 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끌어 보려했다"면서 "그 동안의 남북 문제 천착 끝에 결과물로서 이 작품을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청어, 1만3000원.



▶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가지 사건(백영서 지음)=1919년 5·4운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89년 톈안먼 운동. 이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날 중국을 개괄했다. 저자는 세 사건을 꿰뚫어 흐르는 주선율을 '민(民)의 결집과 자치의 경험'으로 보고 사건에서 등장하는 변혁주체의 궤적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문적인 중국사 연구 성과와 담론을 담고 있지만 독자를 위해 개관-심화-확장의 틀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 읽기를 추구했다. 창비, 2만원.



▶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고석규 지음)=어느 철학자는 시간을 발견한 것이 인류의 최대 업적이라고 말한다. 책은 서양과 조선이 '시간'을 인지하고 '시계와 달력'을 발전시킨 역사를 탐구한다. 최초의 역법부터 현대의 스마트 폰까지 때로는 권력의 상징으로, 때로는 일상의 편리함으로 소용된 시간을 살펴본다. 서양의 달력과 기계시계, 조선의 천문의기와 역법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느낌이있는책, 1만7000원. 오은지기자 ejch@ihalla.com



황당하고 뻔뻔한 의견들 '필터링' 하라

움베르토 에코 에세이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공동체 개념 무너진 사회 책과 예술에서 찾는 전망

소설 '장미의 이름'을 쓴 움베르토 에코, 철학과 미학, 대중문화 비평 등 인문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저서를 남겼고 독선과 광신을 경계했던 지식인이다. 2000년부터 2016년 2월 타계 전까지 쓴 55편을 골라 실은 그의 유작 에세이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는 책하는 방법'이 나왔다.

이 책의 이탈리아 원제는 '파페 사탄 알레페: 유동 사회의 연대기'다. '파페 사탄 알레페'는 단테의 신곡 '지옥' 편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명확한 의미가 없다. 지하 세계의 신이 내뱉은 이 말은 지금 이 사회의 유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에코의 에세이와 닿는다.

에코는 공동체 개념의 위기와 더불어 오직 자기만 아는 무분별한 개인주의가 생겨났으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더는 타인의 동반자가 아니다. 법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눈에 띄는 것이 기준점 없는 개인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다. 무절제한 소비 행태도 그런 것에 속한다. 대상을 소유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폭식증 환자처럼 견딜 수 없는 구매 충동에 사로잡혀 이 물건 저 물건을 계속 집어드는 것이 목표다. 신형이 예전 것보다 성능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멀쩡한 휴대전화를 폐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유동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코는 그럴수록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무관심과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집요하게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곳은 인터넷이다.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하지 않는다는 그는 '골 빈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필터링'을 주문했다. 온갖 종류의 망상과 비난, 존재하지도 않는



음모, 역사 왜곡, 인종주의, 또는 사실 자체가 틀리거나 부정확하거나 졸렬한 설명이 있는 웹사이트에서 정신 나간 의견들과 잘 궁리해서 내놓은 의견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책과 예술은 한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디스코텍 대신 문학페스티벌을 찾는 현상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책은 정보 확산의 주요 수단인 동시에 과거를 알려줄 안전한 매체라고 강조했다.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1만48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연령은 숫자일 뿐 무엇도 말해주지 않는다

스벤 필펠의 '나이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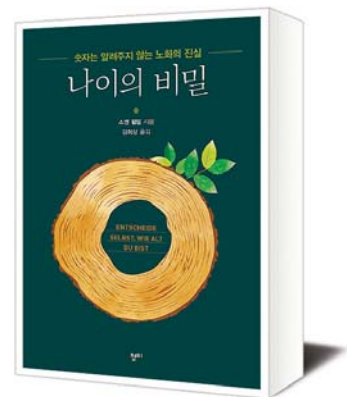
세익스피어는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서 '일곱 개의 막'이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에 이어 학생으로, 사랑에 빠져 한숨을 쉴아내는 시절로, 어느덧 각 잡힌 군인으로, 동그런 배를 가진 중년으로, 콧잔등에 안경을 걸치는 나이로, 마지막 일곱 번째 막에는 어린이에 같은 노인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모든 남자는 늙어감이라는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하는 연가자일 뿐이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그에 대해 독일 브레멘 야콥스대학교 경영학과 스벤 필펠 교수의 '나이의 비밀'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노년의 전형적인 풍경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늙어감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대학 연구팀과 함께 인구 변화

추세와 그 결과를 추적해 온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나이를 보는 선입견을 씻어냈다고 털어놓는다. 70세, 80세 이후의 삶 혹은 심지어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90세 이후의 삶까지도 매우 평안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캘린더 나이, 생물학적 나이, 자화상 나이, 사회적 나이 4개의 장으로 나눠 노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 퍼즐 조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나이의 비밀'은 숫자가 얼마나 말해주는 게 없는지 일러준다. 오늘날의 노년은 태도의 문제, 곧 어떤 생각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게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저자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십계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년 개척을 위한 답사를 마무리짓는다. 연령마다 가능한 일은 따로 없고



안 되는 것은 없다. 너무 늦은 일이란 결코 없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호기심이 십자말풀이보다 더 똑똑해지는 길이다. 보폭 대신 웃음 주름을 만들어라. 사회적 교류는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늙었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은퇴 시 급제동보다는 여유 있게 속도를 줄여라. 익숙한 환경이 아닌 원하는 환경에서 살자. 저마다 노년을 스스로 개척하자. 김희상 옮김, 청미, 1만65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장이지 시인 신작 시집

아무 일 없던 그날처럼 다시 온다면

사월에 죽은 여자와 남자가 그 배에 뒀다. 오월의 하늘에 묻힌 사람들. 안산에서 온 아이. 토벌대에게 죽은 산인(山人)도 갑판에 오른다. 그들을 태우고 바다로 떠가는 풍경이 펼쳐지는 시 '방주'를 따라가다 그만 목이 뒀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녀석들이 성판악의 수림을 배경으로 물빛 셀카를 찍는다."



'대낮' 등 소박하고 사소한 장면이 일렁이는 빛을 발견한 시들로 신작 시집을 낸 장이지 시인.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장이지(본명 장인수) 시인이 몸부림치는 바다 위를 떠도는 그 이야기를 시집 '해저의 교실에서 소년은 흰 달을 본다'에 그려냈다. 한국 시의 정수를 소개하는 'K-포에' 시리즈로 위인 그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세계의 아스라한 바깥을 꿈꾸면서도 '존재의 축제'를 노래한다. 축제의 형상은 부재하는 아픔,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과 대비되며 드러난다.

'초하(初夏)'의 한 구절처럼, 세계는 슬픈 빛으로 반짝인다. "아버지는 이탄(泥炭)을 캐고 나는 그것을 주워 담는다"('스코틀랜드') 노동의 나날, "내 옆

'해저의 교실에서 소년은...' 사월과 오월, 세월호 아이들 부재의 현실 속 존재의 축제



구리의 붉은 피 번져오는('열 구리의 노래') 오월 광주, "바위 속 뱀과 지네의 길을 더듬어" 살아야 했던 사월 제주 사람들 이 있다. 사월과 오월에 더해 여수, 순천의 사연까지 밀려드는 '방주'에서는 세월호의 아이들이 비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맨 앞에 실린 '대낮'은 이 시집에 담긴 서정을 함축하고 있는 시 같다. 폭력과 차별, 혐오, 광기가 낳은 죽음을 목격하고, 수시로 마주해야 하는 이 땅의 존재들에게 절실한 건 그저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라는 점이다. "앞마을에도 뒷마을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나./ 거의 하늘의 것인 대낮에 울지 않고 서서/ 흠날리는 민들레 흩날려 보아도 좋다."

신작 시편들 뒤에 덧붙여진 '시인노트'에 썼듯 시인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와 직면하기", "고유 명사에 집착하지 않기"를 시도하며 시의 언어로 '실재'에 가닿으려 했다. 다크 투어리즘이 각성한 자들을 양산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목한 역사적 장소는 점점 관광지가 되고 있을 뿐이라는 시인은 "지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에 더 주의를 쏟아야 한다"고 적었다. 아시아, 9500원. 진선희기자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사업은 대륙기계와 함께

확장
이전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름 제주총판



DLK21TRC-HS
(20.5마력)



DLK13TRC
(14마력)



DLK14TRC
(16마력)



DLK18TRC
(18마력)



MX-E350 (전동형)



MX-500DL (레도형 덩크+리프트)



MX-500 (레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801
824 워터당 30mm



FELCO 811
824 워터당 40mm



FELCO 820
824 워터당 45mm



무선전동가위



선별기

서귀포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300m) T. 064)767-3430 | 제주시 봉개대륙기계 M. 010-2611-4686